

한라시론



문영인
한림읍농지위원회

농업 경영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개정된 농지법이 6월 16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농지 전수 조사로, 2년에 걸쳐 조사함에 있어 올해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기본 조사 후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한다. 내년에는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읍면 농지 담당자와 조사원을 채용해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농지 전부와 불법 임대차로 의심되는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농지 전수 조사를 위해 법 개정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 2019년 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법인 소유 농지이다. 이에 대한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여부,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드론 등을 이용해 조사하게 된다. 농지 조사에 앞서 담당부서에서는 7월 말까지 사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서면 임대차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경작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불법전용 자진정비를 안내해 무단 설치 컨테이너, 주차장, 창고용 비닐하우스, 건축자재 적재, 정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농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거

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허가 없이 창고,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했던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권고한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는 처분명령을 발령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 한다. 처분대상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대상이 될 수 없는 범위도 정했는데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영농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매도할 수 없다. 매도가 어려우면 농어촌 공사에 매수요청을 해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 농지 조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음성적 임대차 개선, 농지대장 현황화, 농지 이용질서 정상화,

농지 투기 및 불법 이용 예방, 실경작 임차농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지 조사 결과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명령 종료시점 만료 후 공시지가 25/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농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조사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수 가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헐값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내용을 파악한 벼를 재배하기는 어려운 논을 소유한 분들은 논에 흙을 들여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한다. 이 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쪽은 정부이고 속 타는 것은 무상 임대농과 도시거주 농지 소유자일 것 같다.

사설

위성곤 도정 BRT 말 바꾸기 안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인 소통 부재정책으로 꼽혀온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를 속의형 도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제주자치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 서광로 3.1km(광양로터리~도령마루) 구간 조성 후 중단된 제주형 BRT 사업은 도로 한가운데 마치 섬처럼 조성된 섬식정류장과 양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혁신 전략이라는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교통 불편으로 인해 많은 민원을 불렀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성곤 지사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후 공개한 100대 정책과제에서도 ‘제주 BRT 전면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또 BRT사업

은 오영훈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제주자치도가 지방선거과정에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국비 반납 등의 이유를 들며 도민 공론화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국비 반납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토론회 등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미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안으로 다시 도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약을 무력화하는 행태이다. 그리고 공약을 믿고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대도민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태이다. 은근슬쩍 공약을 파기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대도민 사과가 먼저다.

열린마당

나의 가치를 믿고 날개가 돼 주다

김준범
오현고 (2026년 제주삼다수 장학생)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이 돼주셨다. 장학생 선정 소식을 듣고 두 번째로 찾아온 감정은 결을 지켜준 이들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방대한 공부량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사가 돼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품고 버텼다. 제주삼다수재단의 장학생 선발 소식은 무너지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준 계기가 됐다. 나의 노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희미해졌던 목표가 다시 선명해졌다.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부모님과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나의 가치를 믿어주신 제주삼다수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며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 우리 사회에 따뜻하게 공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기쁨이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해온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학교생활과 학업에 기울여 온 나름의 수많은 노력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한 시간을 돌아보면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많았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주변의 도움이 컸다.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며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즐거운 제주여름의 첫걸음은 안전”

제주공항 안전문화운동 전개

‘제주별빛이야기’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2026년 여름철 집중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제주공항에서 전개. 제주공항 1층 로비에서 열린 캠페인에서는 물놀이 안전수칙과 폭염·온열질환 예방요령, 음주운전 예방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안전 실천을 당부했으며 물놀이 안전수칙, 폭염 예방 3대 수칙, 안전신문고 앱 설치와 신고 방법, 음주운전 예방 등을 안내. 양재운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생활 속 안전수칙을 실천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제주’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오소범기자

○…제주별빛누리공원이 오는 24·25일 이틀간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2026 제주별빛이야기’를 개최, 여름 밤하늘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강연을 선보일 예정. 행사는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제주별빛누리공원 일원에서 야외 프로그램인 천체관측, 망원경 체험을 비롯해 나비연·헤이니·코헤이 등이 무대에 오르는 별빛 공연과 함께 25일 실내 프로그램으로 별빛 강연으로 장식.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제주의 여름 밤하늘이 선사하는 특별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천문주과학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여름휴가철 빈번하는 음주운전 절대 금물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1112건이 적발됐다. 면허취소가 608건, 면허정지가 504건이다. 월평균 185건이 적발됐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2748건, 월평균 229건이 적발됐지만 여름휴가철(6-8월)만 따지면 795건으로 월평균 265건에 이른다. 2024년에도 전체 2531건 중 25.5%인 646건이 휴가철에 집중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여름휴가철 음주·약물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의 경우 도내 곳곳에서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2건, 무면허운전 3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단속 시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단속 장소를 미리 공유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휴가철 들뜬 마음에 술자리는 평소보다 더 갖게 된다. 하지만 음주가 운전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뒤따르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부 고

김창보(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장) 아버지 (향교훈장 운천) 김해김공 재현(향년 94세)께서 서기 2026년 7월 14일 10시 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7월 16일(목요일)
▶발인일시 : 2026년 7월 17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훈길장례식장 201분향실 (공향서로 131)
▶장 지 : 봉성리 가족선영

배우자 진원방(목자)
아 들 김창보 며느리 좌여정
창우 현연자
딸 김숙희 사 위 김순지
미성
손 자 김홍찬·홍규·홍석
손 녀 김연주
외손자 김대유
외손녀 김보미·유미·고지은·지원

※ 연락처 : 김창보 010-4233-3150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배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